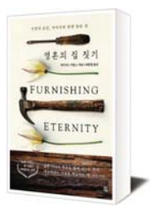
새 책

▶내 옆에 있는 사람(이병률 지음)=작가가 세 번째로 펴냈던 여행산문집의 개정증보판이다. 전편 '끌림',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가 전 세계를 누빈 기록을 담았다면 이 책은 국내로 시선을 집중한다. 전국 8도를 넘나들고 산과 바다를 오가며 포착한 익숙한 풍경과 이야기가 다정하게 담겼다. 달. 1만5300원.

▶사회적 가치 비즈니스(최인석 지음)=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에 성공한 기업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했다. 같은 길을 향하는 착한 기업을 위한 가이드북인 셈이다. 사회적 가치를 경영활동에 반영하면서도 수익이 확대되길 원하는 기업가, 소셜 벤처, 미래 세대에게 길잡이가 될 만하다. 지형. 1만3800원.



▶영혼의 집 짓기(데이비드 기펄스 지음·서창렬 옮김)= 기자이자 작가로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저자가 노년의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보며 기록한 섬세한 감정이 이어진다. 은퇴한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관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나선 그는 그 시간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다시 세운다.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둘 잃어가며 언젠가 다가올 운명의 무게를 마주하는 고민도 담겼다. 다산책방. 1만6000원.

▶내일 또 싸우자!(박종진 글·조원희 그림)= '상두'와 '호두' 형제는 사소한 일에도 싸움이 붙어 주먹이 오간다. 방학을 맞아 오랜만에 놀러간 할아버지 집에서도 아침부터 몸싸움이다. 할아버지는 다신 싸우지 말라는 경고 대신에 "또 싸우고 싶은 싸움을 해보자"고 제안한다. 풀을 더 많이 뜯는 '풀싸움'부터, 눈을 오래 깜빡이지 않는 '눈싸움'까지. 싸울수록 즐거움을 찾는 형제는 올바르게 잘 싸우는 법을 알아간다. 소원나무. 1만3000원.

▶동물들의 우당탕탕 첫 선거(안드레 로드리게스 외 지음·조경숙 옮김)= 숲 강물을 모두 끌어다 자기 굴 앞에 수영장을 지은 사자는 다른 동물들의 시위에도 아랑곳 않는다. 이를 지켜보던 올빼미는 '선거'를 통해 제멋대로 결정하는 숲속의 왕 사자 대신 우리 이야기를 들어줄 대통령을 뽑자고 제안한다. 선거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동물들의 첫 선거 이야기가 알기 쉽게 선거와 투표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길벗어린이. 1만3000원.

▶책방이 사라졌다!(케이티 클랩햄 글·커스티 뷰티맨 그림·박원영 옮김)= 책을 사랑하는 소녀 '밀리'는 동네 책방 아주머니가 여는 책 읽기 시간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다. 그러던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민티 아주머니와 민티 서점이 사라진다. 하루 아침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잃은 상실감에도 이를 다시 되찾으려는 밀리에서 그동안 잊고 있던 책방의 의미가 보석처럼 반짝인다. 찰리북. 1만800원.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명대 사대부의 삶에 벼슬살이의 어려움

판수즈의 '관료로 산다는 것'

문인 17명의 비참한 생애
"뜻을 굽히면 후세에 멸시"

"활시위처럼 강직한 사람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아 시체가 길가에 버려지게 되지만, 갈고리처럼 구부러지며 권세에 아부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 온갖 부귀를 누리며 산다." 동한(東漢) 시대에 유행했던 동요의 구절이다. 중국의 사대부들은 이 노랫말처럼 '정직하게 살면 당대에 핍박을 받고 뜻을 굽혀 아첨하면 후세에 멸시당한다'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명나라 300여 년에 걸친 사대부들의 삶은 어땠을까. 상하이 푸단대학 교수를 지낸 판수즈(樊樹志)가 명대 문인들의 삶과 운명을 좇은 '관료로 산다는 것'에 그 답이 있다.

저자가 소개한 명대 문인은 17명에 이른다. 어려서부터 남다른 기상을 가지고 뛰어난 학문적 성취로 주변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며 성장한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천하를 경영하고 국정을 잘 다스려보겠다'는 '천하사무'라는 원대한 이상을 품고 군주를 보필해 천하를 제패하거나 통치에 공을 세운다.

하지만 전통사회에서 군권은 절대적인 것이었다. 유무형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군권의 행사는 관료제도의 강한 저항에 부닥칠 수 밖에 없었다. 성현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높은 이상과 절개를 가졌던 신하들은 정형화된 모습에서 벗어나려는 군권 행사에 대해 관직을 걸거나 때로는 목숨까지 내던지며 반발했다. 천하의 백성들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을 품고 정치에 참여한 사대부들이지만 결국 평탄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생애를 마치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유기는 뛰어난 재주로 개국공신이 되었지만 의심이 많은 주군에게 버림 받는다. 이선장은 창업의 제일공신이었지만 모반죄로 사형에 처해졌다. 해진은 역린을 건드리고도 살아남았지만 완곡한 간언에 끝내 죽임을 당했다. 강해는 비범한 재능이 되레 화가 되어 우울한 말년을 보냈다. 전겸익은 문인이 정치로 진출했을 때 당하게 되는 비극을 보여준다. 그들의 일생은 즐거움과 환희의 순간보다 억압과 불편한 현실에 고민하는 날들이 더 많았다.

명말 청초 문인이었던 담천은 "관리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라고 했다. 벼슬살이의 어려움은 오늘날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새길 만한 말이다. 이화승 옮김. 더봄. 1만7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위대한 음악가를 만든 18세기 런던 사람들

제인 글로버의 '런던의 헨델'

"영국 태생은 아니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영국 국민을 위해 썼다. 그는 50년 이상 영국 국민의 취향을 발전시키고, 교회와 극장 그리고 음악실에서 영국인들을 즐겁게 해주었으며, 다양한 종류의 훌륭한 음악을 영국인들에게 소개했다."

영국인들은 그를 독일 이름 대신 조지 프리데릭 헨델로 불렀다. 장례식에는 3000명 이상이 모여 들었다. 교과서에서 '음악의 어머니'라고 배웠던 헨델(1685~1759)이다.

지휘자이자 음악감독으로 17세기 베네치아 오페라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제인 글로버가 쓴 '런던의 헨델'은 런던의 무엇이 이국의 젊은 작곡가를 매료시켰는지 탐색하고 있다. 송년음악회의 단골 레퍼토리인 '메시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는 헨델의 오페라를 중심으로 그의 런던 시절을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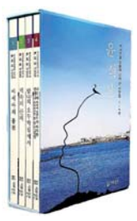
독일 태생의 헨델은 스물다섯에 처음 런던을 여행했고 2년 후 삶의 뿌리를 아예 그곳으로 옮긴다. 그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였던 독일 하노버 가문이 훗날 영국의 왕위를 차지한 점도 50여 년간 런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18세기 초 영국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지만 수도 런던은 유럽 전역에 퍼진 이탈리아 오페라 유행지였다. 이탈리아를 돌아보며 오페라를 맛본 런던의 귀족들은 헨델을 열렬히 환영하며 회원권, 정기권 등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본 작가, 악보 필사자 등 개인 사단의 뒷받침도 컸다. 오페라를 즐기고 지지하는 런던인들이 없었다면 헨델과 영국의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다.

헨델은 70편이 넘는 오페라와 오라토리오를 비롯 종교 음악, 세속 칸타타, 기악곡, 건반 음악 등을 남겼다. 작곡만이 아니라 작품 하나를 무대에 올리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한 점도 기억해야 한다. 헨델은 가수에 대한 평가와 팀 구성, 재능있는 예술가들에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 작품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웠다. 한기정 옮김. 뮤진트리. 2만4000원.

진선희기자

저자와 함께 시전집 낸 윤석산 시인
"고쳐 쓰고 덧붙여 문학인생 정리"



윤석산 시인이 후두암 등 병마를 이기며 지난 문학인생을 새로운 방식으로 정리했다.

1977년 이래 시집 네 권
제주도가 안겨준 행복 등
시작노트와 자서전 추가

1985년 겨울, 시인은 제주도로 향한다. 그 시절을 두고 그는 '하느님이 뒤늦게 공부하고 헤매는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지상의 낙원 제주도'로 보냈다고 회고했다. 시인은 제주에 대한 고마움을 담아 연작시 '제주 서정민요 초(抄)'를 쓴다. 너무 아름답고 슬픈 땅이라 밤마다 제주 역사와 문화, 방언을 공부하고 주말엔 섬 전역을 돌며 시상이 떠오르는 대로 적어나갔다.

연작시의 하나인 '멀구슬 타령'에 이런 대목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제주도엘랑 오지 맙주게. 오더라도 오월엘랑 오지 맙주게. 오더라도 멀구슬 근철랑 가지 맙주게. 꿈처럼 흔들리는 고운 그 꽃은 당신의 입술보다 더 고와서 그 님은 당신을 잊을 꺼우다.' 신혼여행 온 이들을 시샘하듯 그려낸 시편에 행복한 제주살이의 표정이 읽힌다.

제주대 교수로 정년퇴임한 윤석산 시인이다. 계간문예 '다층'을 창간하는 등 문학연구와 창작에 열정을 바쳐온 그는 정부보다 4년 먼저 디지털 한국문학도서관을 구축하다 스트레스 때문에 뇌수막종과 후두암을 얻었고 성대 절제 수술로 목소리를 잃었다. 절망의 상황에도 그는 문학을 내려놓지 않았다. 얼마 전 지난 문학인생을 정리한 시전집 1차 발간을 마무리했다. '아세아의 풀꽃'(1977), '벽 속의 산책'(1985), '말(言)의 오두막집에서'(1992), '나는 왜 비속에 날뛰는 저 바다를 언제나 바다라고만 부르는 걸까'(1994) 네 권을 나란히 냈다.

2019년도 제주 원로 예술인 지원 사업 기금을 받아 진행된 이번 작업은 여느 전집들과 차이를 보인다. 편집과 디자인을 바꿔 종전 작품을 그대로 엮는 대신에 본래 의도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전 시집 일부를 고쳤다. 거기에 연도별 자서전과 시작 노트를 덧붙였다. "문학과 인생은 '거기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고 이를 독자들과 나누려는 뜻이다.

2차로 묶이는 나머지 4권은 여름에 출간된다. 30년 동안 열심히 써왔지만 자신의 시작(詩作) 방향이 바른 것인지 모르겠다는 시인은 머잖아 나올 전집도 꼭 만나달라고 당부했다. 시와실천. 각 1만원.

진선희기자

2020년 개교 113주년 第29回 濟州高 한마당 「잠정연기」를 알립니다

100년 전통의 "興國文民" 건학이념 - 濟州高! 걸어온 감동 100년! 달려갈 희망 천년! 제주고여 비상하라!

《제29회 한마당 주관기(78회)》와 3.15(일) "제2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금번 5월 개최 예정이었던 행사를 『잠정연기(예정기일 -가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질병관리 단계가 하향 조정 되는 시점에 행사를 전면 재개할 예정입니다.

※ 연기사유
: 코로나19 감염의 확산과 그로인한 경기침체로 동문들의 안전도모와 제29회 제주고 한마당의 성공적 개최를 하고자 함.

대회장 제주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오 진 선

집행위원장 제주고등학교 78회 홍 종 수

제주고등학교장 고 용 철

수석부회장 이 한 근

사무처장 김 진 옥

사자, 매향편집위원장 이태성

체육진흥회장 이상곤

부집행위원장 고송효 / 총괄본부장 양희경 / 사무국장 강윤욱 / 총무본부장 신미경
재무본부장 김시찬 / 상황본부장 김운섭 / 기획본부장 양석준 / 행사진행본부장 현상수

경 제주고를 빛낸 자랑스런 동문 축

승 진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현 대 성 (68회)

JDC 협력관 정 성 호 (69회)

제주동여자중학교 교감 고 성 화 (69회)

승진 및 수상

승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 수상 대통령표창 전 병 화 (69회)

승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 / 수상 대통령표창 문 경 삼 (73회)

수 상

교육부장관표창 박 기 종 (73회)

취 임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제11대 회장 김 양 옥 (65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제9대 회장 강 명 언 (65회)

"자랑스런 동문님의 승진 · 취임 ·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고등학교총동창회
회 장 오 진 선 외 회원일동

집행위원장 홍종수 ☎ 010-4645-0769 / 총괄본부장 양희경 ☎ 010-7183-0499 / 사무국장 강윤욱 ☎ 010-4692-8226 / 상황실 Tel 745-1907 · Fax 745-1908